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4. 16(금)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웃사촌 시범마을' 에 대한 전국적 관심 이어져** - 4.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감소위기 극복 우수 현장 방문 - 4. 15일 국토연구원 지방소멸 극복 대안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	인구정책과	
② **경북도, 지진방재 국립기관 설립... 유치전략 모색** - 지진방재관련 국립 통합기관 설립 필요성 강조	자연재난과	
③ **경북도,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선도기업 모집한다** - 경북도, 2021년도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실시 - 지역SW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등 자금 지원	4차산업 기반과	
④ **경북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가져...**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우수 사회적 농장 등 관련 전문가 초청 - 정부 정책방향, 사회적 농장 운영방법, 우수사례, 활성화 방안 등 소개	농업정책과	
⑤ **경북농업기술원, 원예작물 바이러스 방제 세미나 개최** - 화훼류 등 원예작물의 바이러스 및 매개충 방제 연구 활성화 기대	농업기술원	
⑥ **버려지는 마(麻)의 영여자, 드시면 일석이조 효과** - 경북도, 영여자 마보다 우수한 기능성 성분 함유 밝혀내	보건환경 연구원	
⑦ **한국농업경영체경북도연합회, 창립총회... 본격 활동 한다**	축산정책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4. 16(금)】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작성자	과 장	유 정 근		
			팀 장	김준태	주무관	하승현
		연 락 처	054-880-4516			

'이웃사촌 시범마을' 에 대한 전국적 관심 이어져

- 4.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감소위기 극복 우수 현장 방문 -
- 4. 15일 국토연구원 지방소멸 극복 대안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 -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추진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청년들이 모여들고 청년점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재혁 기획조정관이 현장을 찾아 이웃사촌 지원센터, 청년농부 스마트팜, 청년 쉐어하우스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창업청년 점포도 방문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사업참여 동기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달빛레스토랑 소준호 대표는 "농촌에도 청년이 펼칠 기회가 많으며 경제적 성공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에 참여했는데 지금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촌생활의 여유는 덤이다"고 말했다.

장재혁 기획조정관은 경상북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일자리, 주거, 문화 · 복지가 어우러지는 패키지 정책을 완성시켜가고 있음에 놀라움을 표했다.

또한 4월 15일에는 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 등 연구진 3명이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중인 지방소멸대응대책수립연구의 우수 대안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연구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이웃사촌지원센터의 역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웃사촌 지원센터는 기존주민과 유입청년의 연결고리이며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윤활유 같은 기관이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순항할 수 있는 이유는 인프라 사업과 병행해서 유입 청년들이 지역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정서적 환경도 함께 제공한 점이며 더불어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의 유기적인 진행도 큰 장점으로 평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8일에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10월 15일에는 국가 아젠다를 만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농촌유토피아 정책 회의를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초기에는 사업성공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많았지만 일자리와 주거, 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참여 청년이 1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안계평야 경관농업, 골목정원 조성 및 골목축제 개최, 청년특화거리 조성 등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4. 16(금)】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작성자	과 장	최 정 우		
			팀 장	윤배용	주무관	류정옥
		연 락 처	054-880-2368			

경북도, 지진방재 국립기관 설립… 유치전략 모색

- 지진방재관련 국립 통합기관 설립 필요성 강조 -

경상북도는 15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지진방재 정책 및 관련 국립 통합기관 설립 논리 개발을 위해 지진안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학·연이 함께 지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교류 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경북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지진방재연구센터, 기상청, 고려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특히, 각계 지진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신 연구동향 분석과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진방재 정책 공유를 통해 경상북도 지진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道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진방재 정책을 설명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방재 관련 최신 연구 사례와 R&D 연구과제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신규 지진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민간건축물 내진율 제고를 위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진관련 연구·국가기관의 통합 및 기존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국립연구기관의 필요성과 유치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지진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우리지역에 지진방재 국립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유치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효과적인 지진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별첨>

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지진안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道에서 추진 중인 지진방재 선진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가칭) 국립 지진재난 관리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국내 주요 관계기관(관·학·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행사개요

○ 일　　시 : 2021. 4. 15. 13:00　※ 11:40부터 오찬 가능

○ 장　　소 :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202호)

○ 참석대상

(경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최정우** 자연재난과장 등

(관계기관) **김호진** 부시장(경주시), **오금호** 지진방재센터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승구** 국가내진센터장(국토안전관리원), 황의홍 연구원(기상청), **정교철** 교수(안동대), **이진한** 교수(고려대) 등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20~11:40	20′	▸ 등록	‣ 행사 장소 도착 및 등록
11:40~13:00	80′	▸ 오찬	‣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2층
13:00~13:20	20′	▸ 발표	‣ 국가 지진안전 관련분야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지진방재센터장
13:20~13:40	20′	▸ 발표	‣ 경상북도 지진방재 관련분야
13:40~14:00	20′	▸ 발표	‣ 경상북도 민간건축물 내진율 향상 방안 - 장준호 계명대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 센터장
14:00~15:00	60′	▸ 주제토론	‣ 지진방재관련 신규 시책 발굴 논의 ‣ 지진방재 관련 국립연구기관 유치전략
15:00		▸ 마무리 인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4. 16(금)】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4차산업기반과			
		작성자	과 장	박 인 환		
			팀 장	김 현 주	주무관	류 재 하
		연 락 처	054-880-2473			

경북도,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선도기업 모집한다.

- 경북도, 2021년도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실시 -

- 지역SW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등 자금 지원 -

경상북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SW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SW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도 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同 사업은 지역 특화산업과 SW기술 융합이라는 목표로 지역 소재 SW강소기업 및 초기 스타트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대학·지자체·연구소 등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SW융합 新제품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개의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총 14억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사업 지원분야는 ▷모빌리티 서비스(5개 과제,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플랫폼비즈니스 상용화(6개사, 과제당 8천만원 이내) 등 2개 분야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아이디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2021년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지원분야 >

구분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비즈니스 상용화
지원분야	모빌리티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기간	최대 2년(1+1, 2021. 5. ~ 2022.11.)	최대 1년(2021. 5. ~ 2021.11.)
지원규모	연간 기업 당 최대 200백만원 ※ 연차평가 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기업 당 최대 80백만원
선정규모	5개사 내외	6개사 내외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알림 마당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054-880-2473) 또는 경북SW진흥본부(054-223-2182)로 문의하면 된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SW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SW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4. 16(금)】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과 장	김 대 식		
			사무관	정주호	주무관	정영락
		연 락 처	054-880-3316			

경북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가져...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우수 사회적 농장 등 관련 전문가 초청 -

- 정부 정책방향, 사회적 농장 운영방법, 우수사례, 활성화 방안 등 소개 -

경북도는 지난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사회적 농장 관계자, 사회적 농업 실천 희망 농가, 시군 담당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경북·경남·제주권역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회적 농업 실천 우수농장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하였다.

먼저 농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비롯하여 ’21년 추진방향, 중장기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경북·경남·제주권역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적 농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경산 ‘바람햇살농장’의 발달장애인 대상 영농재활 및 소외계층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충남 홍천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업 교육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사회적 농업의 우수 실천사례도 공유하였다.

특히,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18년 청송 해뜨는농장을 시작으로 '20년 경산 바람햇살농장, '21년 포항 꿈바라기, 경산 포니힐링농장, 의성 평평마을 등 5개소가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되었으며,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선 등의 목적으로 개소당 연간 6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사회적 농업이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을 더욱 확산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4. 16(금)】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			
작성자	소 장	박 준 홍		
	담 당	김산영	담당자	김산영
연락처	054-482-0031			

경북농업기술원, 원예작물 바이러스 방제 세미나 개최

- 화훼류 등 원예작물의 바이러스 및 매개충 방제 연구 활성화 기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5일 화훼류 등 원예작물에서 피해가 많은 바이러스의 방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주연 박사의 '화훼류 등 원예작물 바이러스 피해 및 예방'에 대한 발표에 이어 서미혜 박사가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의 주제에 관하여 발표 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화훼류와 고추 등 원예작물에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등 바이러스와 총채벌레, 진딧물 등 바이러스 매개충의 피해가 급증하여 생육불량 및 수량감소와 심한 경우 재배식물 고사 등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로 농약을 활용한 방제에 의존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그 동안 미생물, 천적, 유기농자재, 진단키트, 작물보호제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및 매개충의 예방과 방제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대학 및 중앙연구기관 등과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매년 원예작물의 재배 현장에서 바이러스 등 병해충 관리에 많은 방제비용 지불에도 해결이 미흡한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러스 및 매개충 연구에 매진하여 조속히 방제법 개발을 앞당겨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다짐하였다.
<사진 별첨>

새바람 행복 경북!　　다시뛰자 경북

화훼 등 원예작물 바이러스 및 매개충 방제 세미나 계획

❖ 원예작물에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총채벌레 등 피해 심각
❖ 바이러스 및 매개충 방제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21. 4. 15.(목), 15:00～18:00
○ 장　　소 : 경북농업기술원 본관 4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30명 정도(COVID-19 예방수칙 준수)
○ 강　　사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주연 박사, 서미혜 박사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0	10′	• 등록 및 개회	
15:10~15:20	10′	• 인사말	원 장
15:20~16:30	70′	• 화훼류 바이러스 피해 및 예방	윤주연 박사
16:30~17:40	70′	• 원예작물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	서미혜 박사
17:40~18:00	20′	• 종합토의	연구개발국장
18:00~		• 폐회	

기대효과

○ 원예작물의 바이러스 및 매개충 방제 연구 활성화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4. 16(금)】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작성자	부 장	문성일		
	과 장	이창일	주무관	이은비
연락처	054-339-8141			

버려지는 마(麻)의 영여자, 드시면 일석이조 효과

- 경북도, 영여자 마보다 우수한 기능성 성분 함유 밝혀내 -

경상북도는 마의 부산물 중 활용가치가 낮은 영여자(零餘子)에 대한 기능성 성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영여자에도 약리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영여자는 마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마의 씨앗인 주아(珠芽)*를 말한다. 위장 기능강화와 간의 부담을 감소하는 기능이 있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찬이나 기타 음식에 사용하고 있지만, 식품으로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주아: 식물의 줄기에 생기는 부정아(不定芽)로서, 잎이 발달하지 않고 줄기가 비대하여 구슬 모양으로 된 새로운 개체가 되려고 하는 새끼 식물체

경북 안동에서 재배되는 마(麻)는 전국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데 이번 연구로 안동 마의 우수성과 영여자의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마에는 위장보호 및 소화 운동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끈적한 점액질인 뮤신 외에도 여러가지 약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중 알란토인과 디오스게닌 이라는 기능성 성분에 대해 마와 영여자를 연구한 결과, 알라토인은 마와 영여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었으나 디오스게닌은 마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반면, 영여자에는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알란토인(Allantoin)은 화장품, 치약 등의 재료 성분으로 사용되고 디오스게닌(Diosgenin)은 사포닌의 일종으로 성호로몬의 전구체 등으로

이용될 수 있어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디오스게닌(Diosgenin)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초기 영여자가 성숙 영여자 보다 더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 농가에서 초기 영여자를 채취한다면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된 식품재료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영여자 채취·제거로 마 괴경이 비대해져 상품성이 높은 마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동안 국내 마 생산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영여자가 그 활용처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실정이었다. 2016년에 식약처로부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가 폐자원으로 여겨졌던 영여자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고 식품으로서의 사용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를 촉진시키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4.16(금)】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작성자	과 장	남 진 희		
	팀 장	김철순	주무관	박상익
연락처	054-880-3425			

한국농업경영체경북도연합회, 창립총회... 본격 활동 한다.

한국농업경영체경상북도연합회는 지난 9일 청송 소노벨에서 김영택 경북도 정무실장을 비롯한 경상북도에 소속된 분야별 농업경영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국농업경영체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국내 6만7000여 농어업 법인을 회원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기능성 농수산물을 생산해 디지털 농림축산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이에 발맞춰 도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관 심의, 임원 선출, 창립선언문 및 강령 채택, 사업계획 정책사업, 사업계획 목적사업, 추진 사업계획과 같은 주요 의안들을 의결함으로써, 선진 농업국가 실현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의 기준을 정립하고 우리 농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초대 연합회장에는 김진영 대표(사과, 청송)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4명 (수석, 상임, 품목직능, 여성)과 감사 3명이 선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택 경상북도 정무실장은 “현재 농어촌은 농림축산어업 인구감소, 고령화, 수입개방 등으로 최대 위기 상황이지만, 그동안 농림축산어업인들이 녹색혁명을 통하여 주식을 자급하고, 산업화 시대에 밑받침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했듯이 이번 농업경영체 창립을 통해 다시한번 선진 농림축산어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별첨>